

DPFC Spotlight

CEO 메시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문기봉 이사장의 메시지	04
공단 소개 LIVE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는 환경자원사업소 탐방기	06
키워드 반상회 공단인들이 들려주는 나만의 솔직한 갓생 이야기	08
힐링 가이드 직원 추천 명소, 북성로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걸어서 5분	12
나눔 네컷 앨범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꿈꾸는 더이음봉사단	14
히어로 상영회 세대 차이? 세대 공감! 용띠들의 솔직한 공단 LIFE	16

DPFC Delight

그린 에세이 기후위기 대응과 일상 속 플라스틱 제로 실천하기	18
대구 나들이 여름의 대구 명소 신천과 두류의 나들이 코스	20
지식 더하기 빠른 속도감과 심리적 안정 승마의 세계	24
행복 만들기 부서장 4인의 원데이 클래스 스테인드글라스 썬캐처 만들기	26
시민행복 NEWS	30

발행 2024년 7월(통권 제1호)

발행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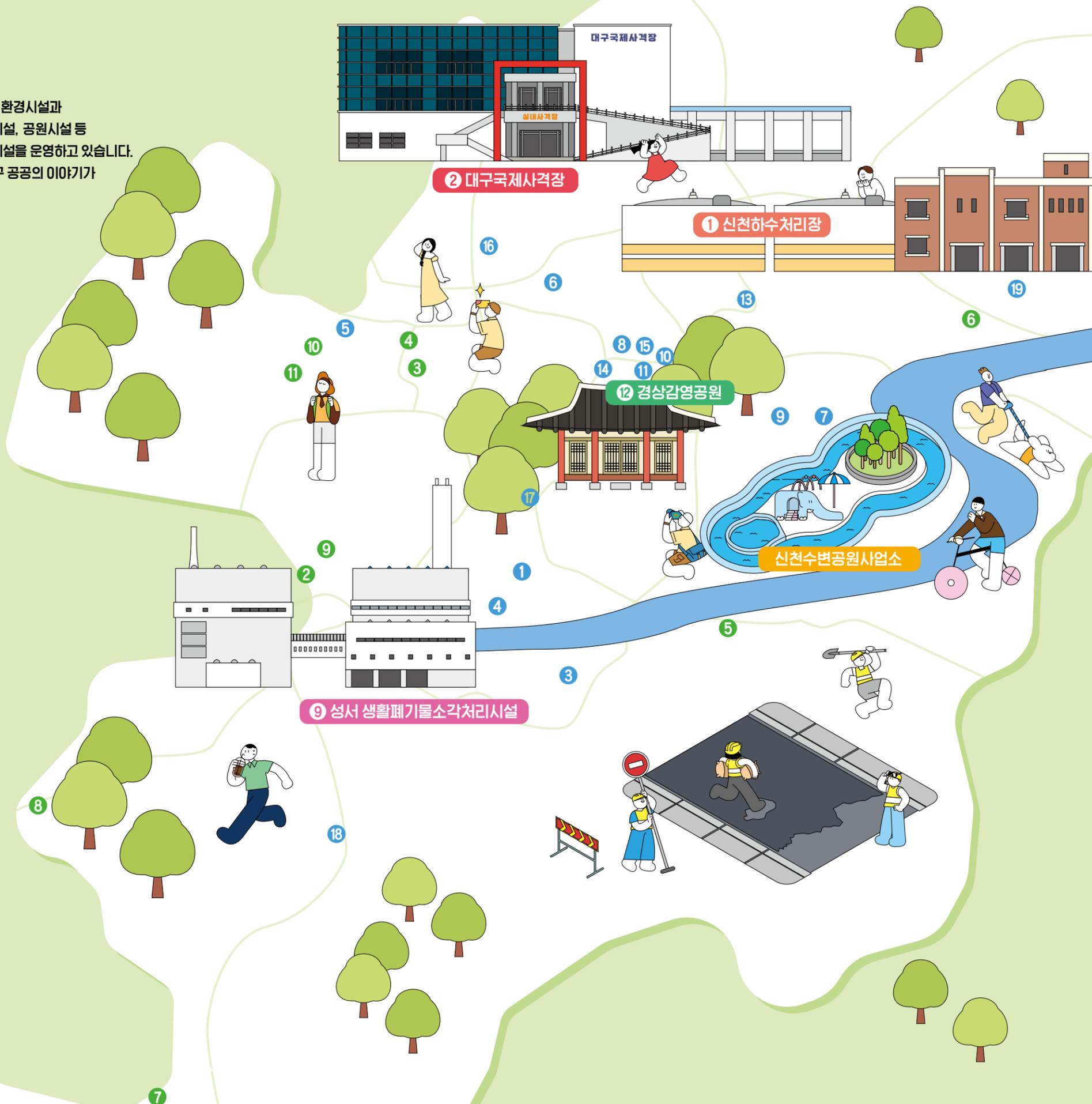
발행인 문기봉

기획·편집 기획조정실 소통홍보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하수처리, 소각처리, 매립처리 등 환경시설과
도로, 가로등,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도시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현장을 지키는 대구 공공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 1 두류수영장
- 2 대구국제사격장
- 3 대덕승마장
- 4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 5 서재문화체육센터
- 6 대구실내빙상장
- 7 명복공원
- 8 대구콘서트하우스
- 9 범어지하도상가
- 10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11 2·28기념중앙공원
- 12 경상감영공원
- 13 동대구역광장
- 14 대신지하상가
- 15 대구역지하상가
- 16 농수산물주차상가
- 17 두류봉제식산업센터
- 18 테크노폴리스로
- 19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 1 신천하수처리장
- 2 서부하수처리장
- 3 달서천하수처리장
- 4 북부하수처리장
- 5 지산하수처리장
- 6 안심하수처리장
- 7 현풍하수처리장
- 8 금포하수처리장
- 9 성서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 10 상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 11 환경자원사업소



대구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단인들의 생생한 이야기, 「공공ON」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문기봉 이사장의 메시지



보다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단과 공단인들, 그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소식지 「공공ON」이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소식지 창간을 맞아 공단의 핵심 키워드인 ‘ESG 경영’, ‘인권’, ‘안전’을 통해 문기봉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공공ON」 독자들에게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A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식지 「공공ON」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공단은 정부와 대구시의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라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이 통합하여 출범한 지방공기업입니다. 2022년 10월 출범 이후 공단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 등급을 획득하는 등 여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직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공단 소식지인 「공공ON」 창간호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단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즐기고 싶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임직원 그리고 가족이 함께 즐겨 읽는 좋은 소식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로 시민행복 도시구현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Q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그중 ‘ESG 경영’ 업무 성과가 대표적인데요. ESG 경영에 관한 공단의 성과를 소개해 주세요.

A 현재 우리 공단은 보다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과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신천둔치 공한지를 활용하여 녹음이 우거지는 신천 숲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깨끗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분진흡입차량 8대를 추가로 편성해 도로 위 재비산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살수차량과 분진흡입차량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숲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지역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기탁하고, 대구의 취수원 이전 예정지인 안동댐 인근 농촌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해 농농교류, 농산물 공동구매, 수확기 일손돕기 등의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2023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에 참가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Q ‘인권’,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올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A 공단은 ‘직원이 존중받는 일터’, ‘인권경영 선도 공기업’이라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2024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최초 인권경영 시스템 4년 연속 인증 달성, 인권경영 지침 수립 등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의 시작과 함께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Zero 목표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각 사업소에서는 매 뉴얼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을 실천하고 있으며, 노력의 결과로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Q 「공공ON」을 창간하며 소식지를 통해 전하고 싶은 공단의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공단은 전국 최초 지방공단 간 통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바 있습니다. 공단 출범과 함께 임직원들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의 대외수상으로 그 결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공단은 대구 시민들이 보다 더 만족하고,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시설로 보다 살기 좋은 대구를 구현하는 것이 공단 운영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공단의 다양한 사업과 운영계획,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단인들의 이야기를 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줄 「공공ON」,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상으로 만나는
환경자원사업소

내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공사장폐기물 등의 종착지가 궁금한 이들을 위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환경자원사업소를 찾아갔다. 환경과 시민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환경자원사업소에 주목해보자.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는 환경자원사업소 탐방기



폐기물 처리, 환경자원사업소가 책임집니다

분리배출, 재사용 등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실천은 환경 보호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환경 보호에는 개인의 실천도 필요하지만, 배출된 쓰레기를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환경자원사업소는 대구시 전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한다. 생활폐기물, 공사장폐기물, 환경기초시설의 협잡물·소각재, 소각이나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 등 모든 폐기물을 처리한다. 환경자원사업소의 구성원은 총 44명으로 사업지원팀, 매립팀, 시설팀으로 나뉘어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사업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언제나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3년 기준 폐기물은 총 322,750톤으로 일평균 1,044톤이 환경자원사업소에 반입되었으며 침출수는 총 388,926㎡가 처리되었다. 친환경 매립에는 폐기물을 토사로 덮는 복토 과정이 필수다. 복토는 환경 피해, 침출수 발생 등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서 일일복토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인 침출수도 적정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상리사업소의 위생처리장, 달서천사업소의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적정처리 후 하천으로 방류한다. 침출수 집배수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누수방지 시스템과 악취방지시설을 상시 운영하며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도 사전에 방지한다. 이렇게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문제도 관리하며 환경자원사업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다.

환경과 시민을 위해 한 걸음 더

매립지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환경자원사업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쓰레기 매립이 환경을 해친다는 인식과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매립지 운영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과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자원화 사업은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LFG)를 에너지원

으로 활용한다.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갖추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 그리고 악취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악취관리시스템이 있다. 총 다섯 단계를 거쳐 작동되며 최종적으로 악취 확산 예상 지역에 탈취제 분사시스템을 가동해 악취를 제거한다. 악취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 일일복토를 철저히 시행하고, 중간복토와 보수복토 과정도 세심하게 살핀다. 악취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때 탈취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매립지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불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시설도 제공한다.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전한다. 비록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좋지 못한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환경자원사업소는 친환경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간다.

함께하는 내일을 꿈꾸는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처리의 마지막 단계를 맡는 환경자원사업소,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우리는 환경보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환경자원사업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분리배출을 들었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정리할 때 불에 타지 않는 것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은 별도로 잘 구분해야 한다. 분리배출만 잘해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소통간담회와 노사화합 행사를 통해 직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건강한 관계를 발판 삼아 사업소의 성장을 도모한다. 앞으로도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악취 관리 방법을 탐구하고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더욱 안정적인 시설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시민들과의 교류로 신뢰를 쌓고 매립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폐기물 처리는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다.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임을 다 하는 환경자원사업소의 내일을 함께 지켜보자.



환경자원사업소의 공단인 TALK



이인규 차장 매립팀 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가장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곳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직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늘 고맙고 수고가 많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애리 대리 매립팀 최근에 독립을 해서 직접 분리배출을 하다 보니 작은 실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악취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예전보다 아주 깨끗해졌다, 악취가 덜 난다고 말씀해주실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최현지 주임 시설팀 반입 및 계량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늘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는 동료 직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일 최선을 다해 잘 해내겠습니다!

공단인들이 들려주는 나의 솔직한 갓생 이야기

알차고 부지런한 하루를 보내는 이들에게 흔히 '갓생'산다는 칭찬을 한다. 갓생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진 가운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갓생을 사는 직원들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번 키워드 반상회는 자기 계발을 쉬지 않는 네 명의 갓생러를 만났다.



갓생 키워드

갓(God, 신)과 생(生)을 조합해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하루를 보내는 삶을 뜻하는 신조어



왼쪽부터 이해진 주임, 조동욱 주임, 우현정 과장, 박정우 대리

☉ 갓생을 사는 일주일을 소개해 주세요.

우현정 과장 현재는 직장과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어요. 수업이 일주일에 두 번 있어서 평일 중 이들은 퇴근 후에 학교에 가죠.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테니스를 치고 베이킹을 해요. 베이킹의 경우엔 원래 좋아하는 취미라 자격증까지 뒀어요. 동영상도 보며 레시피를 배우고 직접 재료를 구매해 디저트를 만들고 있어요. 테니스는 최근에 시작한 건데, 사실 테니스를 하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 했어요. 공을 되게 무서워 했거든요. 좋아하고 잘하는 걸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두려움과 결핍을 발견하는 것도 발전에 도움이 돼요. 하기 싫은 일이라도 발상의 전환으로 용기 있게 도전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깨어나는 게 갓생의 묘미가 아닐까요. 갓생을 살기 위한 습관이 있다기보단 정해진 스케줄이 있으니 지키려고 하다 보니 하루를 열심히 살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 갓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저 노력하는 생활을 주변에서 갓생이라며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 갓생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나요?

이해진 주임 숙면과 체력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저는 보통 11시쯤 잠들어서 7시 반에 일어나요. 8시간 정도 꼭 자면서 컨디션을 관리합니다. 깨어 있는 동안 말짱한 정신으로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한 숙면이 양질의 하루를 만들어요.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갓생을 위해서는 역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갓생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운동도 권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 헬스를 주로 하지만 예전에는 스쿼시, 발레 등 여러 운동을 했어요. 관심이 오래가는 편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았죠. 퇴근 후 취침 시간 전까지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거나 주말에 주로 헬스를 가는 것 같아요. 엄청 대단한 하루를 보낸다기 보다는 잘 자고 잘 쉬며 체력 관리를 하는 게 갓생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 갓생을 살기 위한 태도를 소개해 주세요.

조동욱 주임 갓생이라고 하면 루틴을 지키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저는 딱히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탄력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삶을 꾸려 나가죠.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개방되어 있어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부르면 바로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 하는 게 많아지고 시

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원래 독서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글을 쓰기도 해요. 마음대로 글을 쓰다 보니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표현력이 좋아졌어요. 삶에 있어서 변화와 자극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흥미가 빨리 떨어지는 편이지만 자주 자극을 주면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을 조금 틀어서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자고 마음 먹으면 3일이 30일이 되고 길게 유지되는 실력이 생깁니다.

☉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갓생 습관이 있나요?

박정우 대리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저녁 시간이 남는 게 아까워서 공부나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취미가 생겨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뒀고 온라인으로 평생학습원 수업을 들었어요. 요즘은 잠시 멈춰 놓은 상태지만 길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만 돌아봐도 점심시간 틈틈이 공부하거나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처 헬스장이나 사업소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단 내 학업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계발을 하고 싶다면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출근하는 날이라도 시간을 잘 쪼개서 사용한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복성공구골목



근·현대사를 한눈에 대구근대역사관



도심 속 힐링공간 경상감영공원



예술이 숨 쉬는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걸어서 5분 복성로

다채로운 시간을 만나는 곳, 복성로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무대를 느낄 수 있는 대구콘서트하우스는 대구의 중심지에 위치해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좋다. 특히 대구에서 발달한 변화가인 중앙로, 반월당과 가까워 함께 들를 만한 곳이 많다. 대구콘서트하우스의 정문에서 횡단 보도 하나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복성로는 대구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장소다. 오래된 공구 골목의 상점들은 아직도 활발히 영업 중이며 젊은 세대들이 자주 찾는 트렌디한 카페도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다.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곳이니만큼 다양한 세대가 복성로를 찾는다. 복성로에서 가

대구콘서트하우스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문화시설 중 하나로 시민들에게 수준급의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눈과 귀로 공연을 한껏 즐기고 또 다른 경험으로 하루를 채우고 싶은 이들을 위해 대구콘서트하우스의 공단인들이 모였다. 시설관리원 이대욱 주임과 이흥구 주임이 직접 추천하는 명소인 복성로로 함께 떠나보자.

까운 거리에 있는 경상감영공원은 해가 쨍하니 떠 있는 날,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고 고풍스러운 외형을 가진 대구근대역사관은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끈다. 저녁이 되면 복성로 우동·불고기를 찾는 사람, 세련된 바와 레스토랑에 걸음하는 이들로 북적인다. 이대욱 주임과 이흥구 주임이 들려주는 복성로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대욱 주임에게는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었고 이흥구 주임에게는 여러 기억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같은 장소라도 얽힌 추억에 따라 특별하게 기억되는 법, 장소에 담긴 그들의 이야기는 복성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이대욱 주임 PICK! 복성공구골목

공구 수집에 취미가 있는 이대욱 주임은 복성공구골목을 자주 찾는다. 이곳은 지금까지도 희귀한 공구를 판매하여 마니아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가게 주인들의 노련함을 닮은 간판들은 저마다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다. 이대욱 주임은 구하기 힘든 공구들도 복성공구골목에서 찾을 수 있다며 쉬는 날을 이용해서도 방문한다고 한다. 해가 지면 대구의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복성로 우동·불고기 가게에 들러 가볍게 허기를 달랜다. 자꾸만 들어가는 우동 국물을 안주 삼아 보내는 시간은 소소하지만 행복한 기억이 된다.

이흥구 주임 PICK! 경상감영공원



이흥구 주임에게 복성로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다. 과거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젊은이의 성지로 불린 곳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신구의 조화가 돋보이는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전통을 지닌 건물 사이 엄청난 규모의 빌딩이 세워져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도심 속 평화를 가져다주는 경상감영공원은 수목이 잘 조성되어 산책하기 좋고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근처의 노포에서 연륜의 맛을 느끼며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근대문화거리를 천천히 거닐다 보면 3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을 느끼게 된다.

돌아와서, 대구콘서트하우스

복성로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대구콘서트하우스로 돌아와 보자.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이대욱 주임과 이흥구 주임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한다. 방문객들에게 공연장을 안내하고 공연이 끝나면 공연장을 정돈한다. 방문객의 처음과 끝의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화려한 공연의 무대 뒤에는 묵묵하게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행복한 기억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대욱 주임과 이흥구 주임은 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이어져 있었다.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꿈꾸다 더이음봉사단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집단 간의 연결이 희미해져가는 가운데,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단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더이음봉사단은 2023년 1월 19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통합·출범한 뒤 많은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손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흔쾌히 달려가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온정을 베푼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더이음봉사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람과 사회를 잇는 더이음봉사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되며 새롭게 출범한 봉사단은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가입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의지에 달렸으며,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직원들이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들도 생겼다. 사내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평소 업무 외에는 만나기 어려운 동료들과도 소통이 가능해졌다. 처음 봉사단으로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끈끈해졌다. 따뜻한 마음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더 큰 다정함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보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나서고자 하는 동력이 필요했다. 그렇게 더이음봉사단은 사회공헌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없음에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이어져 왔다. 봉사단원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참여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더욱 풍성한 활동들을 만들어준 것이다. 지금도 더이음봉사단은 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더 많은 수혜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이음봉사단이 앞으로 나아갈 길

하반기에 들어서며 더이음봉사단도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했다. 여름철 더운 날씨를 대비해 쿨키트를 지원하고 삼계탕 나눔봉사를 나갈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초청 문화공연 관람, 김장봉사, 연탄나눔봉사 등 많은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다. 더이음봉사단의 다음 목표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공헌을 확장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년문제를 살펴봄에 자립준비 청년, 가족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선행은 영향력을 갖는다. 누군가의 선한 의지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이렇게 나눔 온기는 의미가 약해진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주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 더이음봉사단은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들이 펼쳐나갈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스스로 실천하며 행하는 사회공헌

더이음봉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연초 설맞이 떡국 나눔을 시작으로 지역 특산물 공동구매, 신학기 청소년 학용품 지원, 사랑의 빵국수 만들기,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일손돕기, 사회적약자 영산홍 축제 초청, 찾아가는 환경교실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지역농가, 아동 및 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주저없이 발 벗고 나섰다. 이러한 활동들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더이음봉사단의 운영방식에 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것. 봉사를 하며 일을 처리한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스스로 즐거움과

● 더이음봉사단의 발자취 살펴보기

#지역경제활성화



도농상생을 위한 1사1촌 자매결연마을 일손돕기로 안동시 도산면에 방문해 사과 수확을 도왔다. 또한 사과, 쌀, 잡곡 등 2백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동 구매하여 지역 농가 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재난구호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에 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을 지원했다. 노력봉사와 재능기부를 통해 가구·농가 4곳에 현장 인력을 파견하고 구호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1천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나눔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봉사가 대표적이다.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성인지적장애인을 위한 물품 기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수사례



2023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획득 / 2023 사회복지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상」 수상 / 2023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자 대회 개인·단체부문 「대구광역시시장 및 국회의원, 표창」 / 2024 초아의 봉사대상 사회부문 대상 수상



세대 차이? 세대 공감! 용띠들의 솔직한 공단 LIFE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76년생, 88년생, 00년생이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진행한 밸런스 게임에도 제각각 답변하던 공단인 4명은 말은 업무도, 나이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공단을 다니는 용띠라는 것! 살아온 시간이 달라도, 살면서 경험한 것이 달라도 공단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현장을 만나보자.



● 두류수영장
김정훈 파트장
취미
가족과 함께
캠핑

● 연구분석팀
한혜진 차장
취미
활발한 음악
디깅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김정훈 파트장 76년생 용띠고요. 두류수영장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들과 회원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혜진 차장 저도 76년생 용띠입니다. 운영지원처 연구분석팀에서 실험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예린 주임 한혜진 차장님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88년생 용띠입니다.

박예린 주임 00년생 용띠예요. 체육시설운영처 대덕승마장에서 예산, 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Q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기억에 남는 일화 또는 당시 도움을 주었던 멘토가 있나요?

A

김정훈 파트장 제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용덕 소장님이 떠오릅니다. 아직도 멘토이자 사회생활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하신 한 마디가 인생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어요. "같이 실력을 키워나가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질책하지 마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그때부터 부진한 사람이 있다면 다독여서 함께 발전하자는 마인드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혜진 차장 신입사원 때면 엄청 옛날이긴 한데, 두 번째 발령받은 사업소에 출근할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찾아가기가 어려웠죠. 사업소에 전화해서 길을 묻고 찾아가던 과정이 기억에 남아요. 어느 분과 통화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며 사업소로 찾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분께 감사해요.

이예린 주임 저는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거든요. 경력직이다 보니 처음부터 연구업무를 맡았고, 제게는 버거워 퇴근을 할 때면 '내가 왜 여기에 있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때 제 선임이셨던 전재영 차장님께서 옆팀에서 서류철을 받아오시더니 나도 잘 모르니까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고마웠거든요. 알아서 하라고 둘 수도 있는데 선뜻 손을 내밀어주신 거예요.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예린 주임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근무한 곳이 주차팀이었어요. 요즘 미납이나 압류와 관련한 업무를 해서 민원 전화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비속어부터 시작해서 헐박까지 온갖 말을 들으며 화도 많이 나고 속상했죠. 그때 팀원들이 많이 위로해주셨어요. 그런 전화가 오면 자기한테 넘기고 밖에 가서 쉬고 오라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되게 오래 남아요.

● 연구분석팀
이예린 주임
취미
철저한 계획
으로 여행

● 대덕승마장
박예린 주임
취미
퇴근 후
다니는 헬스



현재를 돌아보며

Q 사내에는 다양한 세대가 존재할 텐데요. 세대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나요?

A

김정훈 파트장 저는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상담해주는 게 가장 좋지만 먼저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다면 천천히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양하는 편이에요. 서로 선을 지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혜진 차장 저 같은 경우엔 젊은 직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둘러 말하거나 내심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내다 보니 단순하게 말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냥 맛있는 걸 많이 사줘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친밀감을 쌓아요. 그게 업무량 연결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예린 주임 인간적인 존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기 어렵고, 차이라는 건 분명 존재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단순히 다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서로 강요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윈윈(WIN-WIN)하며 좋은 동료 사이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예린 주임 팀원들에게 많이 칭찬 받는 편이라, 부딪치거나 세대 간 차이로 벽을 느낀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나 배려하는 태도로 팀원들을 대하죠. 내 일이 아니더라도 도와주고, 나중에 부탁도 하면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일이 많고 힘들어도 배려하다 보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며

Q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돌아본 소감과 함께 하는 동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김정훈 파트장 초심을 생각하게 되네요. 옛날 생각을 하니 지금 동료들과 함께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어요. 동료들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만들고 하고 싶네요.

한혜진 차장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신선하기도 했고 본받을 점도 많아서 좋았어요.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교류하는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예린 주임 늘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커요. 옆에 계신 차장님께 한마디 하자면, 차장님처럼 행복하게 직장생활 보내고 싶어요.

박예린 주임 직장생활을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는 적이 없는데, 돌이켜 보니 고마운 사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억을 바탕으로 더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PLASTIC ZERO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 발간한 2024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장기 리스크 순위로는 1위 기상이변, 2위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 3위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4위 천연자원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인해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가 일어나 임계점(Tipping Point) 초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일상 속 플라스틱 제로 실천하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는 결국 생태계의 붕괴와 생물다양성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플라스틱 과소비, 중독현상이다.

현 시대는 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를 지나 ‘플라스틱의 시대(Plastic Age)’로서 인류를 호모 플라스틱쿠스(Homo Plasticus), 즉 플라스틱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현생 인류를 부르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이다.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물건은 찾아보기 어렵다.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기초 화학 원료가 만들어지고, 제품으로 탄생한다. 플라스틱 제품은 건축용 자재, 운송 차량, 화학첨유, 식품 포장재, 농업용 필름류, 전기전자제품, 소비재 제품 등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50년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톤에 불과하였던 플라스틱 생산은 2021년에는 약 4억 6천만 톤으로 거의 수백 배 증가하였다. 만약 이대로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0년에는 현재의 3배 증가한 약 12억 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 과정으로 인해 해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고, 조류와 어류가 방치된 플라스틱을 섭취하여 폐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지름이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심각한 오염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 천일염, 각종 해산물과 어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미세 플라스틱이 태아 때부터 뇌에 축적이 되면 신경발달에 악영향을 미쳐 불안, 우울, 사회성 결여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우리의 무분별하고 부주의한 플라스틱 과소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매년 약 20억 톤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온실가

스 배출량의 약 3% 정도를 차지한다. 문제는 현재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증가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206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전 지구적 차원에 일어나는 오염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국제환경협약이 현재 국가 간 협상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정부간협상위원회 5차 마지막 회의를 거치면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조만간 시작될 수 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에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플라스틱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퇴출하는 등 강력한 국제적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바야흐로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산업계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 전부터 전자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쇼핑, 음식배달 소비, 커피 소비량 등이 급증하였고, 결국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과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플라스틱의 소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줄인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펼치며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우수 활동을 공유하면서 각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을 축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공공기관과 학교,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스포츠 경기,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공원 등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 플라스틱 제로 실천의 삶은 현재 당면한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고, 지구 생존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다.

글 장용철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 충남대 교수



활기를 띠는 여름의 풍경은 무더위를 잊게 만든다.
대구의 명소에 들러 더위를 식히는 건 어떨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과 대구의 명소까지
마스코트 공공이와 함께 여름을 책임질 나들이를 떠나보자.

여름의 분위기를 한껏 느끼며 대구에서 보내는 시간



캐릭터 공공이
환경과 시설 등 시민의 행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 해결하는 히어로!
시민들이 쾌적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활기찬 에너지를 전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캐릭터입니다.



첫번째 코스 생동감 있는 신천에서 즐기는 액티비티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



김광석다시그리기길



방천시장

신천수변공원에서 보내는 활력 있는 시간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

대구광역시 남구 신천서쪽자전거길 237

7월에 문을 연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은 신천수변공원에 위치해 물놀이를 즐기며 신천의 자연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신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다 더위를 식히고 싶을 때,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을 추천한다.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은 최근 개장한 곳인 만큼 깔끔하고 청결한 시설을 자랑한다. 국내 최초로 하천 내 설치된 파도풀장에서 바다에 가지 않아도 물결치는 파도에 몸을 맡길 수 있다. 그리고 넓고 쾌적한 가족풀장, 놀이기구가 있는 어린이물놀이장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 가족, 친구와 함께 방문해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면 더위가 저절로 가실 것이다. 더군다나 세족시설, 야외샤워시설 등 편의시설도 잘 구성되어 있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일상을 보내다 문득 물놀이장이 생각난다면 도심 속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에 찾아가 보자.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며 만드는 활기찬 추억은 여름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01

음악의 선율을 느끼며 걷는 김광석다시그리기길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11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은 故김광석이 살았던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에 조성한 벽화거리로,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조명한다. 김광석의 모습을 옮긴 조형물은 그와의 추억이 있는 사람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입구의 조형물은 대표곡인 '사랑했지만'의 후렴구를 내뱉는 순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김광석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섬세하게 제작된 조형물은 곧 김광석을 직접 만나는 것 같은 꿈 같은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노랫말을 새겨 제작한 판넬은 아련한 감성을 더하고 방문객들의 포토스팟이 되어준다. 형형색색의 벽화도 김광석다시그리기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각각 특색 있는 테마와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김광석을 기억한다. 벽화에 새겨진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감미로운 노랫말이 흘러나올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힐 것이다. 김광석다시그리기길에는 군데군데 카페도 있어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02

왁자지껄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방천시장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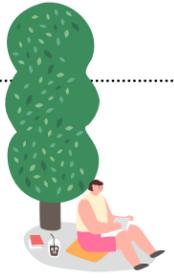


방천시장은 김광석다시그리기길과 짝궁처럼 붙어 있어 함께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발달하기 시작한 방천시장은 긴 세월을 간직한 대구의 전통재래시장이다. 현재 방천시장은 '방천야시장'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저녁이 되면 문을 연 점포와 시장을 찾는 이들로 북적거린다. 포장마차처럼 꾸며진 점포부터 옛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가게까지, 도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회포를 풀고 싶은 날, 방천시장에서 보내는 저녁은 여름밤의 선선함으로 완성된다. 이제껏 생각하던 옛날 시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재미를 느껴보자.



03

두번째 코스 두류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순간들



두류수영장



두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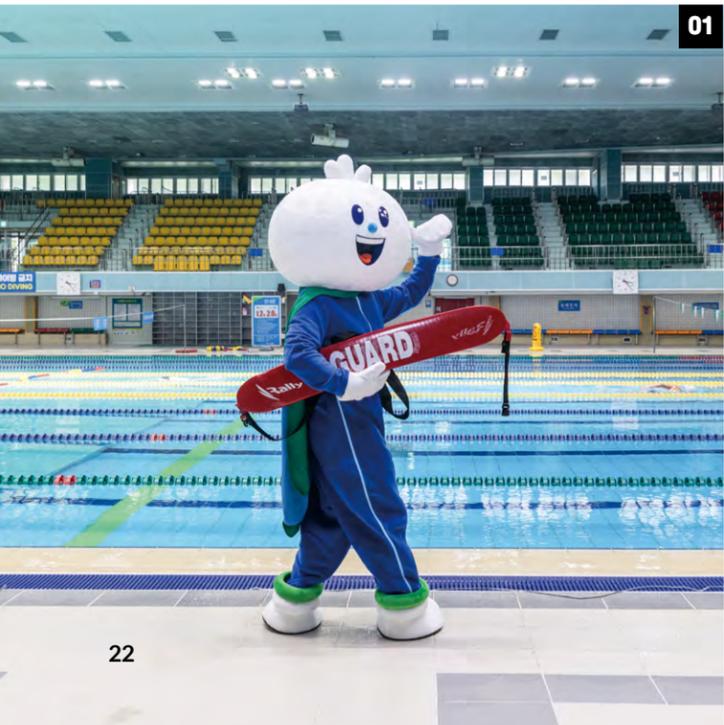
성당못



자유롭게 헤엄치며 누비는 두류수영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물에 푹푹 뛰어들어 더위를 식히고 싶지만 계곡이나 야외수영장은 가기 어려울 때 안성맞춤인 곳이 있다. 바로 대구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두류수영장이다. 자유수영 운영시간에 방문하면 누구든지 수영을 즐길 수 있고, 수영을 취미로 삼고 싶은 이들을 위한 여러 강습도 진행하고 있다. 수영,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요가 강습을 통해 건강과 재미를 모두 얻을 수 있다. 마음껏 수영장을 누비며 보내는 시간은 더위에 지친 마음을 환기해 준다.



01

시아를 가득 채우는 탁 트인 풍경 두류공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대구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알려진 두류공원은 계절을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휴식과 오락을 책임진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이들이 두류공원의 산책로를 거닌다. 소풍 명소로 유명한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은 잔디 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 돛자리나 주변 벤치에 앉아 고개를 들면 청량한 자연과 탁 트인 하늘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초록빛이 어우러져 만드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소란스러웠던 마음을 진정시키는 순간, 진정한 쉼이 찾아온다. 잘 가꿔진 잔디와 산책로를 유유히 걸으며 살랑이는 여름 바람을 느껴보자. 그렇게 조금 걷다 보면 두류도서관과 시민광장이 나와 산책만 하기엔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더욱 활동적인 경험을 원한다면 두류공원 내의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에 가보는 것도 좋다. 시간을 보내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간다면 아름답게 지는 노을을 보며 사진을 남겨보자.



02

도심에서 마주친 자연과 낭만 성당못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



03



도심에서 평온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생태공원이 있다. 성당못은 운치 있는 호수와 푸르른 수목이 어우러진 산책로를 갖추고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산책로인 두리길은 나무데크로 만들어져 누구나 걷기 편하다. 성당못 둘레를 따라 조성되어 있어 걷기만 해도 성당못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여름의 성당못은 연못에 떠다니는 수련이 백미다. 연꽃과 함께 있는 정자라 하여 이름 붙여진 부용정과 함께 눈에 담아 보자. 부용정과 연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낭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것이다. 부용정으로 가는 아치형의 다리인 삼선교는 우아한 멋을 더하고, 특히 밤에는 부용정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근사한 야경을 만들어낸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방문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봐도 좋다. 벤치에 앉아 성당못의 황홀한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자. 그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절로 충전되는 경험이 될 것이다.

빠른 속도감과 심리적 안정 승마의 세계



잘 사는 삶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정의하는 잘 사는 삶이란 학업이나 업무와 같이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의미한다. 부지런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분배해 업무 외에도 공부나 운동을 병행한다. 이러한 트렌드가 생기면서 여러가지 운동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승마이다. 입문 장벽이 높은 스포츠지만 점차 대중화된 시설이 늘어나며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승마의 매력을 함께 알아보자.



실내 마장과 대덕승마장 전경

몸의 긴장을 느끼며 균형을 맞춰가는 시간

승마는 낙마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 많은 이들이 즐기기에 어려움이 있는 스포츠였다. 그러나 최근 초보자를 위한 승마 체험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정기 승마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승마는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량 감소와 근력 향상에 좋다. 몸의 각 부위가 긴장된 상태로 중심을 유지하면서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식이조절과 병행하면 다이어트 효과도 볼 수 있다. 또한 발을 땅에 대지 않고 하는 운동이므로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흔들리는 말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단련된 코어는 신체 밸런스를 맞춰준다. 하루종일 앉은 채로 일과를 보내는 직장인들의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운동으로 적합하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에 집중하느라 둔해진 몸의 감각을 깨우기에도 제격이다. 반복적으로 상하 운동을 함으로써 장 활동을 촉진시켜 변비도 완화시켜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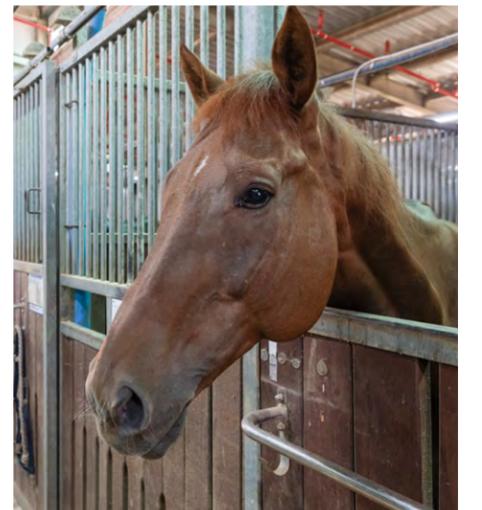
믿고 몸을 맡기며 나누는 교감

운동 효과 외에도 승마가 가지는 장점들이 있다. 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로 말에 타는 순간부터는 말과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 천천히 걷기부터 빠르게 달리기까지 말과 함께 하는 동안 두터운 신뢰를 쌓아간다. 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사람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승마는 실제로 재활스포츠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재활을

통해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도심 속에서 이토록 빠른 속도감을 체험하기란 쉽지 않다. 백 마디 말보다 따뜻한 체온으로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준다. 말과 함께 달리는 순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대덕승마장에서 느끼는 승마의 매력

대구에도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대구 앞산에 위치한 대덕승마장은 대구지역 인근시설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며 아름다운 풍경과 수목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푸른 자연과 울창한 수목 사이를 달리며 느끼는 상쾌함은 일상에 충만함을 불어넣는다. 대덕승마장에는 76두의 마필을 수용할 수 있는 마사동과 실내마장, 실외마장이 있다. 처음 승마장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교육을 듣고 말을 배정받아 강습을 들을 수 있다. 잘 못 타는 건 아닐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난이도에 맞게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누어 승마 강습을 제공한다. 처음부터 무작정 말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당근을 먹고 체취를 맡으며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무리 없이 승마를 할 수 있게 되면 마필 컨디션에 따른 행동조치 능력과 말의 관리, 기승 지도 능력 등을 배울 수 있다.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색다른 경험이 필요하다면 대덕승마장에 방문해 보면 어떨까? 이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취감을 선사하며 더욱 균형 잡힌 일상을 만들어줄 것이다. 업무 스트레스는 잠시 잊고 몸의 긴장과 이완을 통해 어깨의 짐을 내려놓는 건 어떨까.



마필 76두를 수용하는 마사

유리 조각의 아름다움, 우리의 반짝이는 추억
부서장 4인의 스테인드글라스 썬캐처 만들기



창으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공방에 자리한 스테인드글라스 썬캐처가 영롱하게 빛을 낸다.
행복을 만들기 위해 아기자기한 공방에 찾아온 4명의 공단인들은 바로 연륜이 돋보이는 부서장들.

**환경자원사업소의 최현상 소장, 동부사업소의 문경숙 소장,
이동지원처의 전상익 처장, 지하상가인수단의 천준호 단장이 모여 마음을 나누었다.**

처음은 늘 떨림과 설렘을 동반하는 법

공방을 들어서면 형형색색의 유리 조각들은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며 자연스럽게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밀하게 조각된 작품부터 심플하게 만들어진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공방이 어색한 듯 공방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는 네 사람의 눈에는 긴장과 설렘이 역력했다.

스테인드글라스 썬캐처 만들기는 도안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이다. 4명은 도안을 보자마자 어느새 집중해 각자의 취향이 담긴 도안을 골랐다. 고민 끝에 최현상 소장은 네잎클로버를, 문경숙 소장은 열기구를, 전상익 처장은 레몬을, 천준호 단장은 백조를 골랐다. 고른 도안을 두고 답소를 나누는 부서장들에게서 천진난만함이 묻어나왔다. 마음에 드는 유리 색깔을 고른 후, 유리판에 도안의 모양을 따라 선을 그렸다. 웃음기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선을 그리며 한껏 집중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실금을 내면 그 모양대로 잘리기 때문에 그린 선을 정확히 따라 긋는 것이 중요했다.

“꼭 달고나 만드는 것 같네.”

긴장은 잠시, 전상익 처장의 말에 다시 미소가 피어졌다. 어릴 때 설탕을 녹여 굳힌 후 원하는 모양대로 자르며 달고나를 만들던 때가 생각난 것이다. 전상익 처장은 이번 윈데이클래스의 에이스, ‘공대 출신’이라는 그는 가장 빠르게 유리 조각을 자르고 사포질까지 마쳤다. 도안과 똑같은 모양으로 자른 레몬은 전문가가 했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이어서 문경숙 소장도 과정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와 전상익 처장과 답소를 나누었다. 전상익 처장이 열기구 모양을 보고 꼭 튀르키예의 열기구가 생각난다고 말하자 문경숙 소장은 진짜 그 생각을 했다면,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골랐다고 미소지었다.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가는 테이블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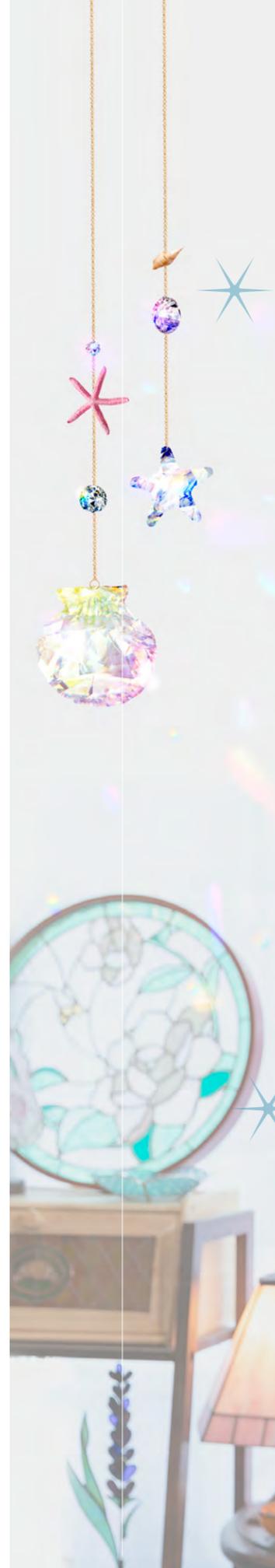


각자의 개성을 담은 유리 조각들

유리 조각을 사포로 다듬는 과정은 사소해 보이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곁을 매끄럽게 만들어야 다른 조각과 조합했을 때 예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이다. 매끈해진 유리 조각을 모아서 납땜을 하기 전 테두리를 따라 테이프칠을 해 준다. 백조 도안을 골라 조각이 많은 천준호 단장은 괜히 이걸 골랐다고 말하면서도 누구보다 바빠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초록색 네잎클로버 도안을 고른 최현상 소장은 아직 다 만들어 지진 않았지만 반짝이는 게 예쁘다며 유리 조각을 한참 들여다보기도 했다. 문경숙 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 중 유리를 가는 것이 가장 재밌었다며 매끈하게 갈린 조각들을 자랑했다. “처음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제 썬캐처에 같이 달 부자재를 고를 거예요. 종류가 많으니 유리 조각과 잘 어울리는 걸 골라보세요.” 어느새 테이프칠까지 마치고 조각을 확인하던 강사는 칭찬일색이었다. 모두가 쑥스럽다는 듯 웃고는 강사가 얘기한 부자재를 고르려 일어섰다. 이미 완성된 스테인드글라스 썬캐처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부자재를 골랐다. 각자 생각해둔 스타일이 있는지 가져온 부자재들은 4명의 툭툭 튀는 개성만큼이나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전상익 처장은 달과 별로 구성된 부자재가 마음에 쏙 든다며 썬캐처에 걸지 않고 목걸이로 만들어도 되냐는 질문도 하며 환하게 웃었다. 문경숙 소장은 열기구 조각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투명한 보석과 딸랑거리는 종을 골랐다. 한참 고민하던 최현상 소장은 문경숙 소장의 “보석까지 큰 걸 달면 작품이 죽어보이지 않을까”라는 조언에 심플한 부자재를 선택했다. 천준호 단장은 유리 조각을 계속해서 도안에 맞춰보고 모양을 달리하며 신중하고 묵묵하게 작품을 완성해 갔다.

이야기를 담아 더욱 아름다워진 썬캐처

마지막 단계인 납땜은 위험할 수 있어 강사가 대신해 줄 때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상익 처장은 나서서 납땜하는 곳으로 갔다. 한껏 숨씨를 자랑하다가도 납땜에 집중하는 열정이 돋보였다. 웃음꽃이 만발한 공방은 어느새 처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완성에 다다른 작품을 기다리는 기대로 가득 찼다. 하나둘씩 완성된 스테인드글라스 썬캐처가 모였고 모두 직접 만들어낸 것에 대해 뿌듯함을 드러냈다. 작품이 완성되고 나니 대화는 더욱 활발하게 오갔다. 하나의 스테인드글라스 썬캐처를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클래스에 지친 기색을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사람은 끝까지 강사의 말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과정까지 마쳤다. 도안을 고르는 데 이어 유리 색깔을 고르고, 유리를 자르고 갈며 새롭게 탄생시킨 조각은 테이프칠과 납땜을 거쳐야 비로소 작품이 된다. 유리 조각과 어울리는 부자재를 고르고 체인 길이를 정하는 것 또한 간단해 보이지만 취향과 용도를 고려해야 해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함께라면 그저 재밌다는 말처럼, 각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소통하다 보니 어려운 과정도 금세 지나가고 공방에 전시된 작품만큼이나 훌륭한 썬캐처가 완성됐다. 그들이 만든 썬캐처는 눈으로만 보아도 아름답지만 직접 만든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가 묻어 있다. 만들면서 동료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완성했을 때의 쾌감이 어땠는지 썬캐처를 보면 연상되는 기억이 몽글몽글 떠오를 것이다. 대화를 나누며 만들어낸 화합의장에서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서로를 더욱 잘 알게 된 시간. 네 사람이 나누었기에 특별해진 추억은 썬캐처가 만들어내는 찬란한 빛처럼 반짝인다.



환경자원사업소 최현상 소장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치만 만들고 나니 참 흐뭇하고요. 나중에 손자를 데려와 함께 해야겠어요. 이렇게 같이 웃도 맞춰입고 와서 만들기를 하니 색다른 재미가 있네요. 집안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잎클로버를 선택했는데요. 현관에 달아 제 마음을 담고도 싶고 자동차에 달아 매일 보고도 싶어요.



동부사업소 문경숙 소장

일단 스테인드글라스 자체가 생소했고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강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현관이나 베란다 쪽에 달아 놓으려고 해요. 열기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영혼을 담은 열기구에 종을 달아 이제 바람이 불면 종소리가 울려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동지원처 전상익 처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해보는 거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써서 조심조심 만들어냈네요. 해냈다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만드니 더욱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썬캐처는 제 자동차에 주는 선물이예요. 룸미러에 걸려고 좀 작게 만들었고, 달아 놓고 자주 볼 예정입니다.



지하상가인수단 천준호 단장

작품 하나를 만드는 데 섬세함과 인내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이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완성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백조는 도안이 많아 어려웠지만 완성하고 나니 성취감도 들고 백조에 대한 아름다움도 느껴지네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뉴스(NEWS)



대면 방역 로봇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월 18일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HD 현대로보틱스 본사에서 개방형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자원과 신기술을 공유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과제 발굴과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대면 방역 로봇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공단과 HD현대로보틱스는 지하상가 시설을 활용한 자율주행 방역 시스템 개발 및 검증 테스트베드와 기술·제품 상용화를 위한 양 기관 피드백을 제공하고 실증완료 후 혁신제품 조달청 구매 신청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문기봉 이사장은 “공단은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기에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공단의 인력, 장비, 기술을 지역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적극 개방하여 대구 지역 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사업소, 2024년 주말농장 무상 분양 실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북부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작물을 가꾸고 재배하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이메일, 우편물, 방문접수로 신청받은 대상자

에게 주말농장을 무상으로 분양하였다. 올해 주말농장 분양은 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1구획 당 10~13㎡, 총 30구획이 무상으로 분양되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컴퓨터 랜덤 방식으로 추첨하여 1가구당 1구획씩 배정하였으며, 배정받은 농장에서 4월 15일부터 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달성사업소, 무재해 14배수 달성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성사업소는 2011년부터 14년간 무재해 운동을 추진해 무재해 목표 14배수(2,804일, 319,220시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달성사업소는 2011년 1월부터 무재해 운동을 시작한 이래 2024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아 무재해 14배수 목표를 달성했다. 이에 3월 12일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무재해 14배수 목표 달성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무재해 목표 달성 인증’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해 무재해 목표시간을 달성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증제다. 달성사업소는 그간 무재해 사업장을 위해 정기안전보건교육, 안전캠페인, 위험성평가, 안전 전문기관 합동점검 등 전 직원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4월 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지방공기업 발전과 경영 개선 및 국정과제 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22년 10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 정책에 따라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이 합쳐지며 출범된 이후 혁신경영계획을 통한 경영효율 및 재무건전성 강화, 지역상생, 디지털 전환 등 공공기관 혁신과 구조개혁을 선도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대시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



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2022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이 되어 2023년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장관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대구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난춘’ 과 나드리콜 AI 상담원 개발 업무협약 체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3월 19일 한국장학재단 대구청년창업센터 창업기숙사 입주기업인 난춘(주)과 나드리콜 인공지능(AI) 상담원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목표로 체결됐다. 나드리콜 인공지능(AI) 상담 시스템이 도입되면 약 30% 이상의 콜센터 운영비용 절감과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 투자기관’ 제9회 노사 한마음 화합행사 개최

대구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6월 5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북부사업소에서 노·사·민·정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제9회 노사 한마음 화합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광역시 투자기관 5곳(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서부노인전문병원)의 노사



대표 및 직원 350여 명이 참석해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앞서 대구시 투자기관 노사상생협력선언과 다자녀가구 공무원 계속고용 협약식도 함께 열렸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노사문화 정착과 경영혁신 정책 협력, 다자녀 정년연장 정책 선도적 도입, 공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동참, 상호존중과 상생 노사문화 정착이며, 이 중 다자녀 직원의 계속고용 정책은 고령층 고용확대와 다자녀가구 우대를 위해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대구시가 처음으로 시행한다.



美ERA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2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 인증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미국환경자원협회(이하 ERA)가 주관하는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증받았다. ERA는 ISO/IEO 17043 인증을 받은 국제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으로, 매년 국제적 수준의 시험분석 능력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숙련도 시험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는 공단을 포함한 전 세계 1,018개의 분석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수질분야 5개 항목(BOD, TOC, SS, 총인, 총질소)에 대해 평가받았다. 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질분야 5개 항목에서 모두 ‘만족’을 판정 받아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시험·검사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